

김홍호  
칼럼

삶의 핵심에 이르는 사람들 ⑩

## 실존 — 존재 자체를 자각하다

| 김홍호 |

‘나’라는 한계 상황 위에 영원의 각인을 아로새기려는 야스퍼스의 실존을 들어보십시오  
(편집자 주).

---



지붕 위에 감알이 새빨갳다. 다 익은 것이다[盡性]. 동양 사람들은 다 익은 사람을 실존[仁]이라고 한다. 자기 속알을 가진 사람[德]이요, 지붕 위에 높이 달려있는 감알처럼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다. 사랑의 단물이 가득 차고 지혜의 햇빛이 반짝이는 높은 가지의 감알, 그것이 어진 사람이다. 완성되어 있는 사람, 성숙해 익은 사람, 된 사람, 다한 사람, 개성을 가진 사람, 있는 곳이 그대로 참인 사람[立處皆眞], 언제나 한가롭고[心無事] 무슨 일에도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事無心], 이런 사람을 동양인들은 사람이라고 한다.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平常心], 더 준비할 것이 없는 사람[無爲],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命]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道]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실존이라고 한다.

실존은 된 사람이다. 밥을 먹으면 밥이 되고 옷을 입으면 옷이 되어 모든 사람을 먹고[中], 모든 사람을 입히고[利], 모든 사람을 비추고[智慧], 모든 사람을 살리는[復活], 그런 사람이다.

나뭇가지에 달린 감알처럼[十字架]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殺身成仁] 그런 사람이 실존이다. 무엇을 따지는[人間], 무엇을 다투는[人格], 무엇을 뒤덮는[人物], 무엇을 빼앗는[人生], 갈라진 인생이 아니라 갈라지기 이전의 희로애락喜怒哀樂 미발未發의 근본적 인간, 어디나 통하는 조화된 인간, 이런 인간을 동양인들은 사람이라고 한다.

된 사람이다. 자기를 잊은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그것이 실존이다. 실존은 학자가 아니라 철인이다.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목적이 있고 정열이 있다. 그 정열에 인간은 감격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을 따라

갈 때에 그도 감격을 느끼고 정열을 느끼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런 실존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선생님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이 있고 특별한 주장이 있고 특별한 실천이 있고 특별한 표현이 있다. 그들은 평생 그들의 주장과 태도와 그들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튼튼함이 있고 힘이 있다. 그 힘에 사람들은 그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이 힘을 매력이라고 한다. 이 힘은 정신의 힘이요, 인격의 힘이요, 실존의 힘이다.

실존에는 언제나 힘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은 지식이 빚어내는 기술의 힘이나 자연의 힘이 아니고 지혜가 밝혀내는 정신의 힘이요, 인간 고유의 인격의 힘이다.

이 힘에 매력을 느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자기 자신도 하나의 진실존재가 된다. 자기에게서 힘이 솟아나고 빛이 발함을 느끼게 된다. 실존이 된 것이다. 마치 어미닭 품속에서 계란이 깨어나듯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진실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진실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 진실이 매력의 근원인 것이다.

## 실존 범주

야스퍼스는 칸트의 양量, 질質, 관계關係, 양태樣態에 준하여 실존 범주를 세웠다.

실존주의의 범주로서 양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생활의 일관성, 연속성, 통일성이다. 칸트는 양의 범주를 단일성單一性, 수

다성數多性, 총체성總體性이라고 하였는데, ‘실존’의 입장에서 보면 실존적 결단이 단일성에 해당될 것이다. 실존적 결단은 ‘현존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존재는 애욕, 자기 보존욕, 권력욕, 명예욕, 죽음의 불안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있다. 현존재의 의지는 언제나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나 행실을 뒤집어엎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언제나 교만과 이익이 앞서고 자의와 망각이 뒤따라 그들의 생활에서 진실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과 허위가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의식 일반’의 입장은 어떨까. 의식 일반은 보편적 자기요, 개별적인 현실적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자기의 획일화, 규격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고, 대상적 지식이 보편 타당성을 요구하는 강제력을 가진다고 해도 자기 분열을 막을 재간이 없다. 의식 일반은 대상성으로서 통일되어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요, 그것이 과학적, 기술적인 현대인이 겪는 인간의 고통이다. 법적이거나 사무적으로는 해결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대 생활의 기구 속에서 인간과 인간은 계속 충돌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런 싸움은 인격의 분열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정신’적 입장은 어떨까. 정신의 입장은 관상적이요, 실천적이지 않다. 정신은 현실의 행위로부터 유리된 가능성의 세계를 구상하기 때문에 결단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가공의 가능성을 뒤따르기 때문에 분열에 빠지게 되고 정신은 아름다움 속에서 그의 구원을 얻을 뿐이다. 결국 결단은 ‘실존’의 입장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실존만이 한계상황 안에 설 수 있고, 이러한 한계에서만 인간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각이 본래적 자각으로서 결단으로 이끌어가고 생활의 일관성을 가져오게 한

다. 결단했을 때만 인간은 전체적이 된다. 결단의 순간은 결정으로서 쌓이지만, 그것은 전 생애와 연결된다.

결단이 자기의 생명이나 행복과 상관없이 할 일을 뚫고 나갈 때 생활에 일관성과 집중성을 가져오게 된다. 결단은 내적인 행위다. 그것이 초월자와 연결이 될 때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리하여 일관성이 된다. 사람은 일관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회복해 간다.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심이 돈독한 사상가라고 하지만 본인 자신은 누구한테도 신앙을 권유한 적이 없다. 그가 누구에게나 요구한 것은 다만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인들에게 “나는 기독교를 위해서 희생한다기 보다는 진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어질 자격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진실하다.”고 말하였다.

야스퍼스가 진실이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변덕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려고 한다. 남을 속일 수가 있지만 자기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라는 것은 가장 절대적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 양심의 근원은 하도 멀고 깊어서 사람은 마음대로 그것을 뽑아버리거나 말살할 수가 없다. 가장 자기일 때에 자기 속의 깊은 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사람들은 생명욕, 자기 보존욕, 권력욕, 애욕 등에 잡혀서 무한히 헤매고 있고 별난 장애에도 부딪히고 고통과 쓰라림도 맛보고 죽음의 위협도 맛본다. 그러나 허망한 인간의 욕구는 무엇을 얻어도 아무런 만족과 안주가 없다. 역시 인간은 진실을 가지고 참 자아와 만나 화해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 참 자아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내 속에서 용솨음친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자기 자신으로부터다. 그것은 자기 속에서

부터 나오고 있다. 자기 속은 현상계를 넘어서 영원한 실재계에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참을 찾아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칸트는 질質의 범주를 실재성實在性, 부정성否定性, 제한성制限性이라는 구조로 설명하였지만 야스퍼스도 실재성에 도달하는 길은 부정성이라고 한다. 부정성이란 그가 말하는 한계상황으로 인간을 절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 죽음, 고민, 싸움, 죄책, 무지, 무능, 현기, 전율, 불안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하여 인간은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그늘진 면을 부정하고 망각하고 도피하고 무시하려고 하지만 진실은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서려고 한다.

하이데거가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 없이는 본래적인 자아로 인도될 수 없다.”고 했듯이 인생의 비극을 내 비극으로 받아들일 때에 인생은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뛰어들어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부정성에 대한 진실한 태도이다. 부정적인 것을 승인하는 진실 없이는 진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다. 언제나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를 제한하여 초월자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써 진무한에 도달하여 불안, 동요의 악무한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아로서 실존하게 된다. 인간은 인식의 대상으로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큰 존재다. 인생은 자기 무덤을 넘어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진실은 무한의 길을 열어 놓는다. 길은 영원한 길이요, 절대적 길이기도 하다.

칸트는 관계의 범주는 실체성, 인과성, 상호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사قم이란 남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과 사قم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고독에 견딜 수 있는 자만

이 참으로 사귀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사귀의 실체성이 있다. 자기는 남과 분리되면서 결합한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응하는 작용, 반작용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인과성과 상호성이 있다. 상호성은 공통성으로 인도하고 결국은 초월자로 끌어올린다. 초월자란 원인 때문에 공동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다.

실존적 사귀는 주체적 사귀이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강요도 없고, 아무런 이해도 없다. 초월자를 통한 감동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가질 뿐이다. 서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 실존적 사귀의 본질이기도 하다. 실존적 사귀는 종일 마주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요, 억만 년 떨어져 있어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자의 사귀는 담담하기가 물 같다고 한다. 그 사이는 아무런 애착이나 이해가 없다. 실존적 사귀에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도 없다. 천년의 간격을 두고도 서로 사랑하고, 만리의 거리를 두고도 서로 존경한다.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이것이 실존적 사귀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객체적 사귀를 멀리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적 사귀는 객체적 사귀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 의사와 환자의 주체적 사귀는 의사와 환자와의 객체적 사귀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 실존적 사귀는 결국 상호존경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게 된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칸트의 ‘목적의 왕국’이라 할 수가 있다. 실존적 공동체도 현존재, 의식 일반, 정신을 수단으로 써야만 한다. 이리하여 실존주의만이 인간을 물건화로부터 구원하여 진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양성한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밑바닥에는 진리가 존재한다. 진리는 공동체를 세운다. 실존에 있어서 진리는 하나의 신앙으로 존재한다. 모든 진실이 사람의 가슴에 깊이 호소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이 공동체에 소속한 일원으로서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로서 단결되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착일 것이다.

실존은 인간적인 현존재가 현존재에 그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자각적으로 나타내는 곳에 성립한다. 현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은 초연적이지만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양태의 범주로서 현실성, 초연성, 가능성을 들어보여 주었다. 인간의 초연성의 가장 큰 것은 한계상황이다. 비참, 무지, 무능, 현기, 전율, 불안이 초연이 될 때 실존은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갖다 준다. 이 용기가 사명을 가져오게 하고 존재의 확신에 대한 양심적 결단을 가져오게 하고 본질적 자기로 깨어나게 한다. 이리하여 한계상황과 사귀는 사랑을 낳게끔 한다. 실존적 사귀에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싸움, 죄책, 고민, 오해, 불신, 질투, 갈등, 이런 초연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가 인간임을 자각한다. 사랑만이 모든 부정적인 고뇌에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사랑이야말로 용기요, 이 사랑의 확신은 믿음을 낳게 되고, 믿음은 결국 소망을 열어준다.

이 소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실존 이성은 어떤 전제나 편견이나 성심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정신이다. 인류의 위대한 교사들은 대담한 새처럼 멀리멀리 날아가는 것이었다. 가다가는 떨어지기도 하고, 암 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무한을 향하여 나르는 그들의 날개는 접혀진 일이 없다. 가능성을 발견한 실존 이성은 기다릴 줄을 안다. 실존적 가능성은 실존적 초연성과 상응하여 언제나 실존적 현실을 이룩해가야 한다.

인생이란 강을 건 기 위해서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내 다리는 내가 놓는 수밖에 없다. 건네주겠다는 많은 다리가 있지만 그 길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길이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나란 한계 상황이요, 비참 자체다. 그러나 이 비참은 유일한 비참이요, 나만의 비참이다. 이 비참 속에 영원의 각인을 아로새기자. 그리하여 이 비참의 바위에서 영원의 기쁜 샘이 터져 나오게 하라. 한계 상황, 비참에 처하여 그 속에서 자기의 존엄과 가능성을 찾아내어 자기의 실존을 살아가는 것이다. 죽기 전에 벌써 죽은 사람이 되어 버리자. 그리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영원성을 아로새기는 길은 죽어서 다시 사는 길이다. 죽어서 다시 사는 이 길만이 본래적인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다. 죽어서 다시 사는 자기가 본래적인 자기가 되는 것이다. 참된 초연성은 참된 가능성을 낳게 하여 오늘의 실존을 진실한 존재로 만들어간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초연적인 것 속에 영원한 것을 찾아가면서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정신을 통일하여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 이 글은 '서양철학 우리심성으로 읽기Ⅱ'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오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